

SK케미칼, 생명과학 공장부지 확보난

울산상공회의소 김철 회장은 4월12일 회원기업 현장간담회 행사의 하나로 SK케미칼을 방문했다.

김철 회장은 SK케미칼 관계자에게 “2011년 국내외적인 경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이 기존사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 성장동력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회사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오명환 SK케미칼 공장장은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신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과학 분야 등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며 “투자를 위해 공장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울산상의회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13>